

200자 안내

가슴으로 흐르는 江

李姬秀 지음

메말라가는 현대인의 삶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관조한 저자의 첫 수필집. 문학과와 인연을 수필에서 찾자 한다는 저자의 진솔한 목소리가 곳곳에 담겨 있다. 「개구멍과 文化」 등 사회인식의 내용, 「싸리꽃」 등 자연에 관한 것, 「나나」 등 이웃에 관한 시선들이 과중함 없이 모아진다.

교음사 / A5 / 226면 / 3000원

무서운 아이들

장 꼭도 지음 / 편집부 옮김

어린이들의 위태로우면서도 신비스런 세계를 그린 장 꼭도의 소설. 제라르폴, 엘리자베트 아까뜨 등 어린이들의 영악하면서 순진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회화적인 문체로 상상력을 자극시켜 준다. 부록으로 '잠자는 이들의 모델' '여러 갈래 길 중에서' 등 14편의 시를 실었다.

동원출판사 / A5신 / 212면 / 2000원

韓半島와 民軍關係—軍事問題의 理論과 實際

趙永甲 지음

한국 군부엘리트들의 정치·사회·경제·문화, 군사문제의 이론과 실체를 다룬 연구서. 한국역사에 기여한 軍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3부로 나누어 '5·16혁명과 軍의 정치참여과정과 역할' '한반도지역의 전쟁사적 고찰과 교훈' '한국군대의 베트남전 참전 정책결정과 평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兵學社 / A5 / 362면 / 6000원

나루터 장날

한국시조시인협회 엮음

한국 시조시인협회 회원 200여명의 대표적 작품을 모은 시조집. 한국전문문학의 맥을 살리는 각 시조들의 주제와 형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기주의 '하구연에서' 황희영의 '비구니' 등 우리 고유의 시인 '시조'의 현대

적 감각을 접할 수 있다.

서문당 / A5 / 440면 / 4000원

내일의 양복점

日本洋裝新聞 엮음 / 편집부 역

품위와 질을 자랑하던 주문양복이 기성복에 밀려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양복점 경영에 위협을 주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구입 즉시 그 자리에서 치수를 맞춰 입을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의 양복점, 이른바 '시스템 오더'란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살폈고, 변화 속에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미래내 / A5신 / 208면 / 3000원

물을 바라보며

석자명 지음

낮은 곳으로만 흘러내리는 물처럼 자유자재롭게 만물을 감싸는 지혜와, 평범 속에서도 진실을 담고 있는 들꽃처럼 미소와 향기를 잃지 않는 자세를 차분히 이야기한 수필집. 부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원정사 / A5신 / 206면 / 2500원

동남아로 가는 길

윤백중 지음

대만·홍콩·인도네시아·일본 등 동남아 8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저자가,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각국의 이국적인 풍물들을 소개한 여행기.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생활관습을 지니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들을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림문화사 / A5신 / 284면 / 3000원

사르트르의 實存主義哲學

村上嘉隆 지음 / 鄭惇泳 옮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소설가인 사르트르의 생애와 철학세계를 소개한 책. 그의 철학이 현대의 철학, 한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답하고 있다. 1부는 사르트르의 생애를 살폈고, 2부는 사상의 변천단계 및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文潮社 / A5신 / 216면 / 3000원

길에서 만난 것들

앤드루 수사 지음 / 정성호 옮김

저자가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의 선교수사회' 지부를 방문하면서 쓴 수필집. 수필 형식 속에 신학과 철학, 그리고 하느님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저자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다. 여행 도중 만난 나라와 사람과 자연환경의 느

낌을 통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현대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성바오로출판사 / B6변형 / 342면 / 3300원

韓國文學과 傳統文化

李慶善 지음

고전과 현대문학이 일반인에게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해설한 책. 1부에서는 문학 속에 나타난 민족정신과 시대사조의 고찰에 대한 이해, 2부는 고전에 대한 현대적 이해, 3부는 전통문화 계승과 창조에 대한 글들, 4부는 역사적 인물들에 얽힌 일화·기담과 함께 저자의 수필 몇편을 실었다.

新丘文化社 / A5신 / 412면 / 8500원

國語科教育各論

朴鵬培 지음

우리의 국어교육에서 독서 및 작문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함과 아울러 각각의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한 연구서. 시험 위주의 현 교육현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독서와 작문교육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샘 / A5신 / 380면 / 7000원

回歸4

회귀동인회 편

문화계와 학계인사들의 친목, 연구 단체인 「회귀동인회」에서 펴낸 네번째 동인집. 지난 5월 별세한 건축가 김중업씨의 예술세계를 추모특집으로 꾸민 김태우씨의 「한국인의 윤리의식」 등 회원의 논문, 시, 수필 작품들을 수록했다.

범양사출판부 / A5신 / 236면 / 2500원

두번째의 사형선고

김훈 저

1958년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1979년에 출감했던 저자가, 지난해 방광염에 걸려 두번째의 사형을 선고받아 살인적인 고통을 당하며 결국에는 종교의 힘을 빌어 암을 퇴치하기까지의 눈물겨운 투병간증기.

弘盛社 / A5신 / 224면 / 3000원

高手

李外秀 외 지음

70년대와 80년대의 젊은 작가 10명의 작품을 실은 단편집. 격변하는 시대상황에 정당하게 진실을 표출하려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작품 속에 창조되어 있다. 이외수의 「고수」, 강석경의 「낮과 꿈」, 박영환의 「빈방에서」, 박완서의 「겨울나들이」 외에 서영은·양귀

자·오정희·윤후명·이순·한수산의 단편을 수록했다.

오상출판사 / A5 / 316면 / 3500원

洪水

르 클레지오 지음 / 李彙榮 옮김

이야기의 부재, 인물의 무성격, 설명거부의 소설가 르 클레지오의 대표작. 인간의 절대성과 존엄성이 상실된 세계에서 마치 홍수에 밀리듯 모든 것이 함께 뒤섞여 꿈틀거리고 있는 작품으로, 지난 86년 별세한 이휘영교수(서울대 불문과)의 번역을 다시 펴냈다.

동문선 / A5신 / 288면 / 3200원

북녘일기

조명훈 지음

지난 5월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관계 전문학자들의 국제과학토론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서독거주 정치학자 조명훈씨가 북한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적은 일기체의 기행문. 특히 저자가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찍은 350여 장의 흑백 및 칼라사진들이 흥미를 모은다.

산하 / A5신 / 318면 / 3500원

어머니의 삶과 죽음

쥘리 케틀 건드라치 지음 / 이종관 옮김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인격체로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어머니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진지하게 접하고자, 저자가 80명의 여성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골라 실었다. 딸이 어머니를 객체 아닌 주체로 파악함으로써, 같은 여성으로서 한 인격체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문학생활사 / A5 / 350면 / 3500원

色即是空

朴學柱 편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철학에 접근하는 길로서, 동서양 지혜의 비교를 통한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즉 동서양의 지혜는 그 문화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깊숙이에는 상호이해가 성립된다고 본다. 불교·기독교 등 종교와 문화유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가르침의 공통점 속에서空的 마음을 깨우치게 하고 있다.

近思 / A5신 / 198면 / 3000원

폰트 명심보감

이근구 지음

'글이 좋아 글을 쓰고 다듬는다'는 저자의 글들을 모은 폰트집. 현대인의 생활 속에 들어있는 허식을 가차없이 뜯어내는 풍자가 교훈을 남겨준다. 「명심보감」의 글귀에서 주제를 포착한 '폰트 명심보감' 10편과 '오해는 금

물' '뭉가 뭉지' 등 30편의 콩트가 담겨 있다.
時明文化 / A5신 / 230면 / 3000원

내면으로의 길

헤르만 헷세 지음

헷세 자신이 「시다르타」와 「어린이의 영혼」 「클라인과 바그너」 「클링소르의 마지막 여름」 을 함께 묶어 1931년에 출판해낸 작품집. 서로 상이한 주제와 형식을 지닌 4편의 소설을 통해, 동양적 세계관을 지녔던 헷세의 문학세계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평발 / A5신 / 368면 / 3500원

새 시대를 위한 바울

로빈 스크룩스 지음 / 조동호 옮김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핵심을 정리한 책. 저자는 바울 해석의 뿌리를 어거스틴, 루틴, 루돌프, 볼트만 등 고전적 흐름에 두면서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의 모델에서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바울이 제시한 초월적 존재와 행동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성서의 증언에 근거한 신학으로 다루고 있다.

大韓基督教書會 / A6변형 / 158면 / 1400원

産業・組織心理學

맥코믹 지음 / 李相彬 옮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서 발생하는 인간문제의 광범한 영역을 다루는 산업·조직심리학 개설서. 조직의 인적 구성과 작업환경을 중심으로 인간행동에 관한 현재의 이론을 논의한다. 직무관련행동과 측정, 인사선발, 인사훈련과 개발, 인간작업의 조직적·사회적 맥락 등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그 역동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裕豊出版社 / B5변형 / 590면 / 9000원

간호사취업영어

한국간호계대학영어교수협의회 편

종합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간호사 취업시험을 대비해 영어실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영어교재. 토플형식에 따라 어휘력·구문력·작문력·독해력을 테스트해보도록 꾸몄고, 미국 간호원국가고시문제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高文社 / B5 / 248면 / 4000원

계간지

역사비평 (88년 가을)

[권두논문] ▲통일운동의 단계높임을 위한 제언(강만길)

[특집] 북한사회주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성립과정(이종석) ▲북한 통일정책과 '고려연방제'안의 성격(이연) ▲북한사회와

여성문제(박현선) ▲주체사상비판서설(최영호) ▲북한의 '사회역사원리론'과 '혁명이론'(조경진)

[기획논문] ▲북한학계의 민족부르조아지와 민족개량주의 논쟁(도진순)

[논단] 송우혜/주강현/김재용

[한국현대사의 증언] 6·25와 빨치산 ▲남부군에서 못다한 이야기(이태) ▲강동정치학원과 지리산 유격대(이태/이영식 강연과 토론) ▲6·25전쟁 발발의 실상을 밝힌다(최태환 증언) ▲빨치산토벌대 '지리산 보아라부대'(신기남)

[악법열전] 강성태 [인물평전] 김도형 [역사기행]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생활사연구소모임 [서평] ▲조선 후기 농민항쟁을 보는 관점(조민)

월간지

사회와 사상(10월 창간2호)

[특집] 사회주의권의 동향과 북방정책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운동(김세균) ▲중국의 개혁과 개방: 그 이념과 정책(서진영) ▲동구 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안병영) ▲전환기의 북방정책(한광수) ▲움직이는 중국대륙의 사회경제(김성훈)

[대담] 변혁기의 대학과 대학교수(김우창·김진균)

[논쟁] 스탈린-트로츠키 논쟁(김홍명)

[논문] ▲통일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안병무) ▲대학민주화운동의 위상과 방향(오세철)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이론구조(이병천)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위기구조와 미국(이연) ▲진보적 문학가 임화의 삶과 문학(김재용) ▲중국 조선족 방문기(상/강재연)

[이달에 만난 사람] 작곡가 윤이상의 예술사상과 실천(송두윈)

[북한기행] 신화와 전설, 항일투쟁의 근거지 백두산을 가다(최익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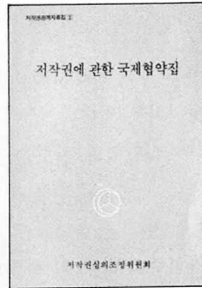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고성국/정운영/김중배/장두성/임현영

[사회와 사상의 창] 이효재/이오덕/신경림
한길사/A5신/294면/2800원



자료집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집



저작권법 개정과 국제조약에의 가입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적절한 참고서적이 없던 차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관련자료집을 발간, 국내 저작권 분야에의 자료제공과 국민의 저작권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화제의 책

아리랑 그 맛, 멋 그리고

김연갑 지음



영원한 민족의 노래 '아리랑' - 한민족에게 있어서 시대와 지역과 사상을 초월하여 이어온 단 하나의 노래이며 또한 길이 불러야 할 노래인 아리랑에 '미친' 한 아마추어 연구자가 자신의 '아리랑학'을 집대성하여 책으로 펴냈다.

제1부 「아리랑학 개론」은 도입부로서,

이색출판

現地法人設立과 運營

趙元基 지음



86년 이후 우리 경제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부터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을 거느린 후발선진국으로 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꿈에 부풀어 있다. 또 사실 外換사정이 호전되어감에 따라

보인다.

이 책은 저작권에 관한 9개 국제 다자협약을 수록한 것으로서 한글번역문과 함께 원문을 게재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수록된 국제협약은 ①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② 1971년 7월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 협약 ③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④ 세계지적소유권 기구 설립협약 ⑤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⑥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 ⑦ 위상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⑧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약 ⑨ 올림픽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등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A5신 / 303면 / 비매품

아리랑의 변천과 매력, 각 지방의 아리랑에 얽힌 사연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2부 「아리랑 논고」에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아리랑의 원형, 아리랑의 변형과 정착, 아리랑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다루고 있다.

제3부는 「자료편」으로서 ① 아리랑 악보 ② 지역별 아리랑 가사 ③ 시에 나타난 아리랑 ④ 가요에 나타난 아리랑 ⑤ 기타자료 등을 수록했다.

50여종 3천여수(권)에 달하는 아리랑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터를 잡고 삶을 시작했을 때부터 부르기 시작, 산악요·농경요·강변과 해변요 등 생활요로 이어져 왔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말 격변의 시대를 맞으면서부터 애국가·광복군가·혁명가·유행가 등 '시대의 노래'로 이어왔다.

집문당 / A5신 / 369면 / 3800원

한국회사가 미국회사와 규모가 큰 합작회사를 설립,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미국으로 진출하는 韓國商社'라는 부제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에 주재·근무하게 되는 商社직원들에게 사전예비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현지법인의 조직'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영업, 사무, 관리 등 복잡한 무역실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 단순히 내용만 나열하지 않고 회사설립 인가신청서, 매도확약서, 우편판매 권유문, 내국신용장,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여신한도의 허용문 등 실제적인 예를 실어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의 駐美 근무경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된 실무도서.

修學社 / A5신 / 222면 / 4500원